

“대학 특성화, 사업·산업에만 치우쳐선 안돼”

해양바이오·아열대생물·IT와 에너지·MICE 특성화… 계획안 30일 공청회서 발표

대학 본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충분히 반영해 계획에 포함할 것”

해양바이오산업, 아열대생물산업, IT융합과 청정에너지, 창의융합 MICE가 제주대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는 계획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교수들은 “이번 특성화 계획이 편향적으로 수립됐다”고 비판했다. 특성화 계획 수립 T/F(태스크 포스)팀은 지난달 30일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에서 열린 제주대학교 특성화 계획(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 발표를 맡은 강기춘(연구책임자, 경제학과 교수) 위원은 “선정된 4개의 특성화 분야는 제주대

의 전통과 강점, 제주도의 선도전략 사업, 지역연고사업, 미래성장동력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특성화분야는 TF팀에서 특성화 선정기준과 9개 특성화 분야를 확정하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성화 분야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상위 4개 분야를 선정했다. TF 측은 “학문분야의 전문화, 대학 기능의 차별화,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등의 포괄적인 특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획부처장은 “이번에 새롭게 대학 특성과 계획을 만든 이유는 국정사업에 따른 대학의 특성화에서 탈피해 우리대학에서 어떤 분야의 특성화가 정말 필요한가를 고민해 이번 특성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서 특성화 계획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날 특히 특성화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 탐라문화 등 제주지역 전통과 문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이번 특성화 계획은 산업과 사업에 치중한 특성화 계획으로 대학의 정신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교수만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기대에 분야를 선정한 것도 문제이며, 평가 기준도 인문학 분야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 교수는 “특성화 계획이라고 보다는 산학협력,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학의 전체적인 아젠다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특성화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많은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등 특성화에 대한 2차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특정 학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덕순 기획처장은 “다른 대학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특성

화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객관적인 척도를 세워 연구를 진행하려 노력했다”면서 “최종보고서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담아낼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 외에도 대학 특성화에 있어 ‘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이라는 것은 산업을 지명하는 학문적 기반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산업’이라는 표현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특성화 TF는 지난해 8월 특성화 계획 수립 추진계획이 마련되면서 특성화 연구를 해왔다. TF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명지 기자

평의회에 학생 참여 의결권은 보장 안돼

5개 국공립대학, 평의회 학생 의결권 인정

평의회에서 학생 대표에게 예산·운영의 기본계획 또는 예·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학생회가 요구하던 의결권 보장은 불발됐다. 지난달 27일 개정, 공포된 평의회 규정 제14조(관계자의 출석 등) 2항에 따르면 ‘평의회 의장은 제11조 제1호 안건 심의 시 총학생회장과 총대의원회 의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11조 제1호 마목은 ‘예산·운영의 기본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일컫는다. 이는 현 총학생회가 등록금, 대학 재정 등에 관한 대학행정 참여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올해 들어선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작년 총학생회 등도 이 같은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은 교권에 대한 침해 우려와 대학행정에 대한 학생들의 비전문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유병선 총학생회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평의회에 학생들이

대학의 심의, 운영기구인 평의회에 참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생대표가 평의회에 참여해 등록금과 같은 것은 대학 재정에 있어 학생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학생회장은 “현재 개정된 규정으로도 학생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학생총회를 열어서라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경상대, 부경대,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한국해양대, 창원대 등 일부 국공립대학(법인)은 학생들이 정식으로 평의회 참여 또는 참관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평의회 규정 제7조 5항에는 ‘평의회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대표 각 한 명을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경상대도 대학평의회 규정 제3조 5항에 따르면 ‘학생 평의원은 학부생 대표 3명과 대학원생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명지 기자

라오스 어린이에 ‘새 생명’ 선물

심장중격결손 수술 성공… 제주대병원·김만덕사업회 후원



안원(5) 어린이와 어머니 겐시 몬(28)씨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이 라오스 어린이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다.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심실중격결손 중에 걸린 안원(ANONHKE 라오스 5세)을 무료로 수술해준 것이다. 이는 아라해외봉사단(단장 양영철)이 지난 1월 19일부터 8박9일간 라오스 학사이마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이는 동안 의료봉사를 통해 질병을 발견한 어린이를 제주에 데려와 수술을 한 것이다. 이번 수술은 김만덕 기념사업회와 제주대학교병원이

수술비, 체재비 등을 전액지원하면서 성사됐다. 이석재(제주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현재는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원의 어머니 겐시 몬(28)씨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심해 수술을 얻내지 못했다”면서 “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성오(새마을중앙회 라오스 현지 집행관)씨는 “마을 주민들과 라오스 현지 당국자들은 경제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 생명을 살려준 의료진에게 감사의 표를 하고 있다”면서 “아라해외봉사단과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실중격결손증은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의 벽(간막이)에 구멍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혈류가 지나가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기형이다. 이 병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으로 알려졌다. 김명지 기자



숨터널 이룬 제주대 입구 뱃나무길 여름을 향해 가면서 제주대 주변 왕벚나무들도 초록빛깔 옷으로 갈아입었다. 나무줄기도 짙은 갈색으로 갈아입었다. 전남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부럽지 않은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김명지 기자

더스틴 명예교수·강태선 회장, 발전기금으로 각각 1억 쾌척

프레드릭 더스틴(제주김녕미로공원 대표·사진 왼쪽) 명예교수와 강태선(주)블랙야크 회장이 각각 1억원의 대학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프레드릭 더스틴 명예교수는 지난달 27일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더스틴 교수가 운영하는 김녕미로 공원은 기업 수익금의 대부분을 제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는 2003년



부터 3년간 외국인 기금교수 재원으로 9200만원을 제주대에 기탁했다. 이어 2006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류수학생 장학금, 외국인교수 연구비, 병원 발전기금 등으로 현재까지 총 5억8334만원의 제주대 발전기금을 출연했다. 앞서 강태선 회장은 지난달 24일 개교 61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1억원을 쾌척했다. 제주대는 강 회장의 발전기금으로 ‘블랙야크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수빈 기자

창업보육센터 개소식 5일 열려

오전 11시 구 대학병원서




창업보육센터 확장이전 개소식이 5일 오전 11시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다. 제주시 삼도동(구)제주대병원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으로 15억원, 제주특별자치도 1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2년 12월 18일 착공한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5월 15일에 완공됐다. 창업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연면적 4119.18㎡의 건물이다. 이곳에는 (주)씨엔알기술, (주)엠티마스터, 유나기업, 흥일전력(주), 조은이앤씨(주), (유)정

석기계설비 등 8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앞으로 12개의 기업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가 완공되면 제주대학교병원이 현재 아라동 부지로 이전한 후 주춤했던 주변상권이 다시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알림 이번 학기는 이번 신문으로 중간합니다. 다음호 제주대신문(896호·백록문학상 특집호)은 7월 3일(수)자로 발행됩니다.



“서점에 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주대 구내 서점은 단순한 책 전시장이 아닙니다.
대학인의 문화공간이며 정보화 문화 유통의 장소입니다.
제주대 구내서점은, 지식과 정보와 문화상품인 도서를 거래하는 만큼
손님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대학인들의 꿈이 이뤄지도록 제주대 서점이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구내서점

문의 : TEL 754- 2383, 726-6035
FAX 726-6036
E-Mail book6035@korea.com

교수신문

창조적인 문제해결자 되기



이경안
수학교육과 교수

문제라는 말 자체가 어렵고

짜증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

독자기고

특정 영화 스크린 독점 막아야



김성삼
언론홍보학과 4

지난 4월 25일, 올레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라고 평가받던 ‘아이언맨 3’가 한국 땅에 상륙했다. 영화 비수기인 4월에 개봉한 아이언맨3는 비수기가 무색하게 개봉 첫 날부터 42만 명을 돌파했다. 이것도 모자라 개봉 후 4일간 아이언맨3를 본 관객들의 수는 무려 260만명이나 되었다.

또한 4월 넷째주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단 4일 만에 웬만한 한국영화의 손익분기점을 간단히 뛰어넘었다. 실로 엄청난 기록이다. 개봉 5주차를 맞이한 아이언맨3는 어느덧 관객 수 880만명을 넘어섰다. 2012년에 개봉한 외화인 어벤저스와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관객 수를 넘어섰다. 이 관객수는 지난 2009년에 개봉했던 외화인 ‘아바타’의 1300만 관객에 이어 외화 영화 2위에 해당한다. 아바타의 기록을 넘기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역대 외화 흥행에 있어 손꼽힐만한 업적을 남겼으니 아이언맨3로서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

흥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축하해 줄 일이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마음을 지을 수가 없다. 왜 씁쓸한가에 대한 이유로 생각보다 영화가 재미없었나? 그건 아니다. 영화는 충분히 재미있었고, 영화 자체적으로도 아쉬운 점이 없었다. 흥행 할만한 요소를 두루 갖춘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숨겨있는 면에서 아쉬운 점이 몇가지 보였다.

아이언맨3가 흥행 성공에 있어 영화 자체로 훌륭했다는 것을 간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성공 요소 중 가장 큰 원인이 극장가의 아이언맨3 도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영화를 보고 싶어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언맨의 장르인 SF, 액션영화를 선호하지 않음에도 아이언맨3를 본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영화관에서 아이언맨3 말고는 달리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화감상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 영화감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취미로 자리 잡아 이제는 관객으로서 단순히 보기만 하는 활동을 넘어서 평론가로서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정기적으로 영화관을

세상의 모든 학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늘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큰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한다. 가끔은 나에게서는 너무나 큰 문제인데 듣는 사람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서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란 무엇일까?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수학, 특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수학에 관심을 둔 수학교육학에서는 문제에는 일반적으로 ‘목적, 장애요인, 해결자의 의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한다. 즉, 문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해결 절차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유발하며 이때 해결자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대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려움을 유발하는 장애요인을 먼저 생각한다. 정말 그렇다. 모든 문제에는 장애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느끼는 장애요인의 크기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장애요인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 여기서 문제의 난이도 특히 문제를 접했을 때 느끼는 어려움의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장애요인만큼이나 문제를 정의하고 한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해결자의 의식이다.

다시 말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자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수학교육에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로 유명한 폴리야(G. Polya)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의지와

자기 조절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의지의 교육이다. 자신에게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봄으로써 학생들은 실패를 통해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조그만 진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배우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모든 힘을 집중시키는 것을 배운다. 만일 학생이 학교에서 해결방안을 찾고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서의 변화에 익숙해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의 수학 학습은 가장 중요한 점에서 실패할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자신의 능력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치 있고 매력적인 문제를 찾아 새롭게 구성하고 해결해보는 ‘문제 제기(Problem Posing)’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해결 의지와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것이다.

수학교육학자인 브라운과 월터(Brown & Walter)는 체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What if not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첫 단계는 먼저 기존의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속성을 자세히 분석하여 나열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열거한 속성에 대하여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What if not?)’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즉, 나열한 속성 중 하나 혹은 일부를 부정하거나 다른 속성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의문을 품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생각한 의문을 기초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새로 만든 문제를 분석하

고 풀이하여 답을 구하는 것이다.

문제, 문제해결, 문제 제기는 수학교육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는 개념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수학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지면을 빌려 문제와 문제해결 그리고 문제 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은 이유는 대학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많은 문제 해결 경험을 하고 또한 이를 통해 훌륭한 문제해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대학생활을 시작한 1학년 학생들로부터 곧 졸업을 앞둔 학생들까지 누구나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이전의 생활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삶과 일상에서 문제는 피할 수 없다.

또한, 문제라는 말 자체가 어렵고 짜증나는 상황을 포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러한 상황에 접했을 때 누가 더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문제에 접했을 때,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도전하였으면 한다. 또한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는 보다 많은 경험과 해결책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께 의견을 여쭙보면 어떨까?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혹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점이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다면 그곳에서 머무르지 말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분석하고 해결해 보는 것을 어떨까?

4년의 대학생활 동안 여러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충분히 하여 강한 의지를 품은 창조적인 문제해결자가 되었으면 한다.

카메라 현장



사상상 주변 나무벤치 12개 중 37개는 사진처럼 크게 훼손된 상태다. 또한 6개는 도색 및 수리가 필요하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다.

강경태 기자

상술 좇는 기념일은 이제 그만

정희민 / 사학과 2

근래 들어 기념일의 상술이 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종류의 기념일 상술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상술에 눈살이 찌푸러질 때가 많다.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데이는 발렌타인데이, 밸레로데이, 화이트데이 등이 있다. 우선 14일로 끝나는 기념일은 성 밸런타인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 하나와 13일이라는 숫자를 기피하는 서양인들이 13일을 무시해 넘긴 기념으로 14일을 축하한다는 설 하나가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몇몇 기념일까지는 이러한 점에서 비롯한다.

실제로 우리 삶에 가끔 있는 기념일의 존재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 요새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다이아리데이, 뮤직데이, 포토데이, 무비데이, 머니데이 등 생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념일들이 넘쳐나고 있다. 새로 생긴 기념일들은 기념일마다 나름의 생성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상술을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춰서 짚어내듯 만들어 내는 기념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술의 존재를 알고, 또 느끼고 있지만 기념일에 맞춰 무언

동문칼럼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임진철
행정학과 06학번

덴 핑계에 불과했다. 그저 떠나고 싶었다. 절이 없다 해도, 현실감각이 없다 해도, 중2병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취업이라는 차디찬 현실을 외면하고 제주를 벗어나 색다른 거리를 걷고 싶었고, 다른 언어를 쓰고 싶었고, 사진 속 풍경 속의 한 부분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총동적으로 유럽행 비행기와 유레일패스를 끊고 뿌연 먼지 가득한 카메라와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유럽으로 떠났다.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 몽펠리에, 기자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뮌헨, 뉘른, 베를린을 거쳐 체코 프라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인스브르크, 비엔나, 이탈리아 로마.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7개국 12개 도시를 돌아다녔다.

언어가 서툴다 보니, 반대로 가는 지하철을 타는 것은 기본이고, 길을 물어놓고는 이상하게 이해해서 엉뚱한 곳을 가기 일쑤였다. 맛도 모르고 사인 해줬다가 돈 내놓으라고 우기는 집시와 말다툼도 하고, 행색이 너무 궁색했는지 독일에서 집시로 오인 받고, 비엔나에서 로마로 가는 십야 열차에선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감수성이 터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꼭 슬픈 에피소드만 있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런던에서 만난 친구를 뒤편에 있는 호텔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펍에 가서 맥주와 소시지를 먹으며 ‘바이에른 뒤편’ 팀의 축구경기를 보고, 파리에선 가йд복을 숙소로 놔두고 나오는 바람에 일본인 관광객에게 길을 물어보고 결국엔 전해져서 같이 베르사유궁전까지 동

행하고, 프라하에선 현지 유학 중인 고등학교 동문을 만나서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TV속에서 보던 관광명소와 교과서에서 접한 미술작품과 역사유물, 패션화보에서 튀어나온 듯한 선남선녀들을 보는 것만으로 즐거웠던 배낭여행이 술술 지겨워질 무렵, 배낭 속 고이 모셔둔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잠깐 멈추고 나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바쁜 것인가, 세상이 바쁜 것인가?”

책을 읽으며 제일 인상 깊던 구절이다. 지난해 뒤편게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다. 제일 한가하다고 한 4학년을 실습과 필요학점을 이수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공부하는 와중에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책도 안 읽고, 생각 정리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앞으로만 달려 왔었다. 그동안 내가 마음만 바쁘게 살아왔고, 주위를 둘러볼 여유를 가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통장의 잔고는 새털처럼 가볍지만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그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침묵할 수 있는 시간과 나만 위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사회복지사가 될 것인지 생각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고생을 사서 한 격이지만 여행 중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그동안 편견의 안경을 쓰고 자기합리화를 했던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얻는 것이 너무 많았기에, 목표를 상실해서 방황하고 있거나, 취업을 앞뒀 스펀트를 받는 학우에게 어디든 상관없이 혼자 떠나보는 걸 권해주고 싶다.

아프니깐 청춘이라고 외치는 힐링도서를 읽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의 특장을 듣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관해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을 막연히 걷는 것도 좋지만, 주말에 올레길이나 숲길을 홀로 걸어보며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권하고 싶은 책

나를 바꾸려면 고정관념·편견부터 깨야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강의 도중 갑자기 10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청중에게 물었다. “이거 가질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다. 그것을 본 교수는 갑자기 100달러짜리 지폐를 주먹에 꼭 쥐어서 꾸기더니 다시 물었다. “아직도 이 돈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교수의 행동에 놀라면서 역시 손을 들었다. 그러자 교수는 꾸겨진 지폐를 다시 바닥에 내팽개쳐서 발로 밟았다. 지폐는 꾸겨지고 신발자국이 묻어서 더러워졌다. 교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지폐를 갖고 싶은지를 물었다. 또다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그 교수는 합찬 어조로 “제가 아무리 100달러짜리 지폐를 마구 구기고 발로 짓밟을 지라도 그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번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며, 더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또는 패배라는 이름으로 그런 아픔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해도 당신의 가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라는 것은 별로 두려워할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더 풍부한 지식으로 다시 일을 시작할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랬다. 인생에서 겪는 많은 실패 중에서 시련의 실패는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실패가 아니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프레임>에서 예시한 프레임의 중요성이다. 책은 7장으로 나뉘었다. 1장 나를 바꾸는 프레임, 2장 세상 그 참을 수 없는 애매함, 3장 자기 프레임 세상의 중심은 나, 4장 현재 프레임 과거와 미래가 왜곡되는 이유, 5장 이름 프레임 지혜로운 소비의 해방군, 6장 변화 프레임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힘, 7장 지혜로운 사람의 10가지 프레임으로 여태 고정했던 프레임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데 치중한다.

저자는 프레임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고 설명한다. 덧붙여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 세상에 대한 비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한다. 잘 안 와 닿는다. 그 보다는 프레임을 ‘세상을 대할 때의 잣대’로 쓰이는 어떤 틀’ 또는 ‘세상을 대하는 생각의 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1970년대 어빙 고프먼이라는 학자가 이 용어를 쓴 뒤 심리학, 경영학, 정치학, 언론학 등 여러 분야로 퍼졌다. 와튼 스쿨에서 13년간 인기강좌였다는 후광을 받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스투어트 다이아몬드의 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도 결국 프레임에 대한 얘기다.

인간의 마음은 허접투성이다. 착각과 오류, 고정관념과 편견,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차 있다. 진실조차도 거짓으로 받아들이거나,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기도 한다. 책장을 넘길수록 실제 우리 마음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창은 건물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틀이지만 그 창만큼의 세상만을 보게 되듯이, 마음의 창도 한 개인의 마음에 형성된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세상 전체를 볼 수는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가장 좋은 전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창을 내야 한다. 프레임으로 인한 마음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프레임을 통해 사물·현상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명료해지고 정리가 된다고 한다.

저자는 학문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사회학자 벤저민 바버의 말을 인용하며 “나는 세상을 감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라고 한다. 우리 모두가 학문 수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년 전 나온 이 책이 26세를 거듭하며 널리 읽히는 까닭은 ‘프레임’을 통해 인간관계와 세상 배우기에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넘어 지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철 지음
『프레임』

